

장성군 농촌 활력 사업 속도 붙었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올 착공
아열대작물 재배 중심지 부각
광주로컬푸드직매장 매출 쑥쑥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지원 확대

장성군이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아열대작물 재배 활성화, 농업 현실을 고려한 농가별 맞춤 지원이 시너지를 내며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올해 장성군 농업 최대 관심사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이다. 350억원 규모 농촌진흥청 국책사업으로,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와 실증을 위한 국가 시설이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 일원에 조성된다. 지난해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마무리해 올해부터 토지 보상과 착공에 들어간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가 건립되면 장성군은 아열대작물 재배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현재 레드향, 천혜향, 애플망고, 패션프루트 등의 품목을 11.6ha 규모로 경작 중이다. 삼서면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레몬 특화단지에는 올해 4.2ha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군은 아열대과수연구회 회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농가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추후 아열대 식물원을 조성해 체험 관광 콘텐츠를 접목할 계획이다.

판로 확대 부분도 주목된다. 군에 따르면 광주시 점단에 위치한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이 올해 들어 총매출 47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설 명절 전에는 일주일 동안에만 3억 3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하루 평균 980여명이 직매장을 찾았다. 청정 환경에서 재배된 안전한 먹거리가 도시민들에게 인정받으며 판로 다각화에 성공했



김한중(오른쪽 세번째) 장성군수가 아열대농업연구회 현장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다는 분석이다.

장성군은 올해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1500명 규모까지 확대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먹거리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오는 7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준공되면 판로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청년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과 식량·원예·특용·축산분야 신기술을 보급하는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올해 21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은 창업·발전자금과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귀농귀촌인에게 초기 영농시설 설치비, 농가주택 수리비 등이 지원된다. 농촌지도 시범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다.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기중별로 주당 1일분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사업'은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장

성군은 2020년 3월 제도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3만 7000여 건, 14억 6800만 원 규모로 임대료를 감면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농촌 인력난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풀 구축으로 해결한다. 150명 규모 외국인 인력풀을 구성해 농작업 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이 밖에도 친환경농업 육성 농자재 지원, 임산물 생산장비 및 자재 지원, 축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미래 농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을 필두로 우리 군 농업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미래 농업정책들을 추진하겠으며, 장성의 농업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350억원 투입

학교·월야 침수 예방사업

함평군은 지난 26일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학교·월야면 도시침수 예방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설명회에서 침수 피해사례, 사업 및 정비 계획,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수해 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은 학교면과 월야면에 350억을 투입해 빗물받이, 관로 등을 설치하고, 근본적인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해 도심침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환경부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함평읍과 대동면 소재지에 대하여도 461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도로명주소·지적재조사 홍보 캠페인

담양군은 설 연휴기간 창평면 전통시장에서 도로명주소와 지적재조사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우리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행사'를 진행해 올바른 표기방법을 설명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2021

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으로 추가 확대된 사물주소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촘촘해지고 있는 주소체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설명하며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창평면 창평지구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였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장흥 관산읍번영회 경로당에 쌀 75가마 기탁

장흥군 관산읍번영회는 지난 26일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쌀 10kg 75가마(200만원 상당)를 관산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사진〉 사선환 번영회장은 "새해를 맞아 관산읍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한파에 난방비까지 올라 어려운 시기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기탁의 뜻을 전했다. 기탁된 쌀은 관내 41개 마을의 경로당 순회방문 때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추상이 관산읍장은 "항상 앞에서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관산읍번영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시는 성품으로 따뜻한 관산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부장 kykim@



나주시, 재활용 중점 생활폐기물 정책 다변화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 강화

재활용품 교환 품목 '2→4종'

나주시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중점을 둔 새로운 생활폐기물 정책을 펼친다.

시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기존 보유 중인 1회용품 재고 소진 등을 감안해 1년 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점진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손잡이가 달린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기존 10ℓ·20ℓ 용량에서 소형인 '5ℓ' 용을 새롭게 추가해 총 3종을 제작·공급한다.

정부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제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편의점, 약국 등 소매점 소비자의 편의와 자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따른 환경 보호와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나주시는 2월부터 재활용 가능자원 교환사업 품목을 기존 종이팩과 아이스팩(젤타입) 2종에서 '투명 페트병'과 '폐전지'를 더해 총 4종으로 확대한다.

다음달 1일부터 우유·두유 등 종이팩(20개·200μℓ), 폐전지(5개), 투명페트병(10개·용량무

관), 아이스팩(5개)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면 해당 수량에 따라 종량제봉투(10ℓ)로 교환해준다.

한번 사용 후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해오던 폐현수막은 재활용용 수거용 마대로 재탄생한다.

시는 3월부터 폐현수막을 활용해 재활용용·낙엽 수거용 마대로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마대 제작은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민들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고 건강과 마을 환경에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도 기존 3종(폐형광등·폐건전지·폐의약품)에서 '폐약', '폐페인트'를 더해 총 5종을 취급·처리한다.

시는 올 상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유해 폐기물 수거함을 공동주택,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하고 오는 7월부터 수거·운반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 선순환에 중점을 둔 민선 8기 생활폐기물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깨끗한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1회용품이 아닌 개인 컵 사용 등 소소한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운전자 누구나 시스템 가입 가능

화순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화순군에서 운행

하는 차량의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1599-6270)나 온라인(화순군청 누리집), 휴대전화 어플(통합주정차단속알림-취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차량번호 00가0000 차량이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라는 문구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군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겠다"며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의 교통편의와 주차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